

우리 농업의 미래 밝고 희망적이다

요즘 농업의 어려움은 주식시장에서 흔히 쓰는 '바닥 다지기'라고 표현하고 싶다.
이 바닥만 튼튼히 잘 다져 놓으면 미래농업은 우뚝 설 수 있으리라고 본다.
미래농업은 농식품산업과 생명산업(BT), 두 축을 중심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할 것이다.



박해상
농업대학 총장

우리나라는 80년대까지만 해도 농정의 제일 큰 과제가 주곡(쌀)자급 달성이었다. 특히 60~70년대 국가 역량을 산업화(공업화)로 집중할 때 식량자급 달성이 국가 지상과제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다. 보릿고개, 춘궁기, 혼·분식 장려 같은 용어도 이 당시 자주 사용했던 단어다.

80년대 후반부터 주곡 자급 기반이 마련되는가 싶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2000년대 들어서는 남는 것을 걱정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쌀 재고문제로 몸살을 앓기에 이르렀다. 적정 재고량의 2배가 창고에 쌓여 있으며 아직도 2005년산 쌀이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고 한다. 쌀 재고소진을 위해 급기야 사료용 공급을 검토하고 있다하니 해결책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모양이다.

요즘에는 쌀을 포함한 모든 농산물의 생산량 증가로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다. 과거 굶주리던 시절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로 농업 생산환경이 너무 급격히 변했다. 여기에 국제화·개방화로 외국의 값싼 농산물이 밀려들어오는 상황이라 "농업·농촌이 어렵다, 희망이 없다, 위기다"라고들 말한다.

이러한 배경에는 위와 같은 농업 생산문제 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서로 얽혀 농업·농촌을 절망적으로 보는데서 오는 격한 표현들이라고 할 수 있다. 외적 요인 중 주요한 몇 가지를 보면 첫째, 국내 전체 산업 생산액 중 농업 생산비중이 1965년도 40% 수준에서 2008년 3.1%로 급격히 감소한 점, 둘째 농가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셋째 농가소득 정체로 도농간 소득격차가 확대된 점, 넷째 도시에 비해 교육, 의료, 상하수도 보급률 등 생활 편의시설도 열악한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여기에서 UR이후 WTO체제 출범을 시작으로 동시다발적 FTA(자유무역협정) 추진 등 대외시장 개방 확대에 따라 취약한 농업분야의 대외 경쟁력에 대한 두려움과 가격 경쟁력이 약한 농가의 농업소득 정체 우려가 겹쳐 “희망이 없다. 위기다”라고 강한 표현을 하고 있다고 본다.

농업변화속도 급격하게 진행

선진국 역시 농업·농촌문제를 어렵고 힘들어하고 있다. 변화의 흐름 속에서 다같이 어려운 농업·농촌문제인데 왜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특히 더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까? 그 주원인은 농업의 변화 속도가 선진국이나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너무 빠르게 진행되어 대비하기에는 시간이 없고 충격 또한 더 크게 느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국내총생산(GDP)에서 농림업이 차지하

는 비중이 40%에서 7%까지 감소하는데 미국은 96년, 프랑스는 94년, 일본은 73년이 소요된 반면 우리나라는 1965년에서 1991년까지 26년으로 선진국에 비해 3~4배 빨리 진행됐다. 이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 결과 농업이 급속도로 왜소해졌다. 또한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화사회로 진입 소요 연수가 프랑스 156년, 미국 86년, 일본 36년인 반면 우리나라는 26년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 농촌은 1999년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그 소요 연수가 18년으로 극히 짧았다.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농업·농촌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급격하게 변화함으로써, 변화정도를 피부로 느낄 만큼 매우 심했다고 할 수 있다.

농업·농촌발전없이 선진국 진입 불가능

우리 농업·농촌은 이와 같은 농업내부 문제 외에도,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더 큰 문제다. 전문가들의 연구발표를 보면 국토 균형유지 발전과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농촌인구가 전체의 20% 이상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한다.

선진 외국을 보면 농촌인구의 점유비가 영국 28%, 프랑스 26%, 일본 22%수준으로 모두 2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도 기준 농촌인구가 18.2%로 더 이상 농촌인구가 줄어들면, 선진국 진입에 큰 걸림돌이 되리라고 본다.

노벨상 수상자인 사이몬 쿠즈네츠 교수는 “후진국이 공업발전을 통해 중진국까지 도약할 수 있으나, 농업·농촌의 발전 없이는 선진국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파한 바 있다.

정부에서는 농업·농업인을 포함한 농촌 정책으로 접근하여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전개, 전원마을 조성, 녹색농촌체험마을 육성 등을 통해 농촌인구 유입과 농촌활력화

결연 수가 7,712쌍, 교류금액이 연간 604 억원에 이를 정도로 기업과 마을, 도시와 농촌의 교류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 결과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농촌 활력화에도 농촌사랑운동이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요즘은 도시민의 농촌관광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2001년에 2,136만 명에서 2008년에는 4,519만 명으로 7년새 2배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10년 뒤인 2017년에는 1억 명 내외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농, 경기도 안성 농촌사랑일손돕기 활동 현장

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민간 차원에서는 농협이 주축이 되어 1사1촌 등도농교류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농촌인구의 감소에 따른 농촌마을의 공동화 현상이 확대되고 고령화 현상에 따른 젊은층이 감소되는 등으로 농촌의 활력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04년부터 시작한 농촌 사랑운동이 이제는 범국민운동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2009년말 기준 1사1촌 자매

농업정책 성장동력산업 육성에 초점

우리 농업·농촌에도 국제적인 흐름과 현실에 맞추어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정부는 미래의 농업·농촌을 잘 예측하여 이에 맞는 정책을 펼쳐야 하겠다.

농업과 농촌정책은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구분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지만, 굳이 농업정책과 농촌정책으로 구분하여 본다면, 농업정책 측면에서 정부는 개별농가가 추진할 수 없는 생명산업(BT) 같은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영농규모면에서 중대농은 농업경쟁력 강화와 소득 창출을 지원하고 노령·소농은 탈농을 지원하여 영농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 농업의 미래 밝고 희망적이다

농촌정책은 농촌관광, 1사1촌 등의 도농 교류를 확산시켜 농촌의 활력화에 기여하고, 주거기반 구축, 의료 및 문화 복지시설 확충으로 탈촌을 억제하고 귀촌을 유도해 농촌인구 감소를 최대한 막아 나가야 하리라고 본다.

우리 농업이 희망이 없다고들 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과연 어떨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미래 농업은 “매우 밝고 희망적이다”라고 전망할 수 있다. 요즘 농업의 어려움은 주식시장에서 흔히 쓰는 “바닥 다지기”라고 표현하고 싶다. 이 바닥만 튼튼히 잘 다져 놓으면 미래농업이 우뚝 설 수 있으리라고 본다. 미래농업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농식품산업과 생명산업(BT), 두 축을 중심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할 것이다.

농식품산업 차세대 국가 성장 동력

우리나라 농식품산업의 연간 매출액은 2005년도 110조 수준으로, 우리나라 농업인이 생산한 모든 농축산물 매출액 36조의 3배 이상이다. 농식품산업은 건강기능식품, 생명산업과 연계하여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농식품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차세대 국가 성장 동력산업으로 꼽히고 있다.

네덜란드는 국토면적이 우리나라의 1/3에 불과한 작은 나라이지만, 연간 농산물 수출이 800억 달러를 넘어 미국에 이은 제

2의 농산물 수출국이기에 우리나라 농업의 모델로 삼아 농정을 개혁해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008년도 네덜란드의 농산물 수출액은 837억 달러로 생산액 346억 달러의 2.4배나 된다. 수출액의 상당부분은 국내 농업과 무관한 수입 농산물의 재수출 또는 가공수출로써 무역업과 식품 가공산업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미래예측학자들은 미래산업을 이끌 트렌드로 「네트워크」, 「바이오테크」, 「나노테크」, 「뉴로테크」 4가지를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 바이오테크와 뉴로테크는 농업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바이오테크, 즉 생명산업은 앞으로 인간의 건강, 장수 등과 관련하여 무궁무진한 발전을 예고하고 있다. 바이오산업은 아주 빠르게 발전하고 매출액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05년도 세계 바이오산업 총매출액은 910억불 수준이며, 1990년 이후 연평균 20%씩 성장해왔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매출액이 2조 8천억 원으로 1990년대 이후 연평균 29%씩 성장해 오고 있다. 이 중의 50%를 농업분야가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 농업의 희망인 생명산업과 농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중·장기계획 하에 전문가 육성, R&D투자 등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미래농업 혁명시대를 이끌어 낸다면 우리나라 농업·농촌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Y